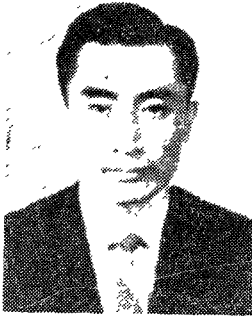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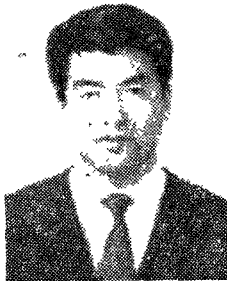
대담

# 북한<sup>\*</sup>의 양계

## 그 실태를 알아 본다.



김 남 식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김 영 옥  
(한국가금협회 편집부장)

기록: 이 성 백  
(한국가금협회 편집부)

7.4성명을 기점으로 남북간의 대화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8월 30일의 남북적십자 제 1차 본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됨으로 27년간 폐쇄된 북한의 사회가 조금씩 배일을 벗게 되었다. 비록 그것이 지정된 장소와 극히 짧은 시간의 통제된 상태속에서 였다고 하지만, 뉴우스를 보던 모든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상상했었던 것 이상의 통제된 상태였구나」하는 느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양계업체에서도 북한의 양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양계인들의 소리가 높아져 비록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까지는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북한 양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아세아 문제 연구소의 김남식씨(前 북한 자강도당 선전부장)를 모시고 북한의 양계에 관해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

### 북한의 농업구조—근본적으로 다른

---

김 영 :안녕하십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을 기점으로 갑자기 북한 러쉬상태가 불어 닥친 느낌입니다. 너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눈앞에 닥치

니 미쳐 판단할 겨를이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 양계업에서도 여타가치 궁금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은 농업구조와 축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 남 :** 우선 몇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제 자신이 농업관계 특히 축산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맞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과 북한의 모든 자료들이 숫자로 표시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쪽의 농업형태나 구조를 생각하실려면, 우선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의 생각에서 비약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토지는 우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국유제이지요, 그리고 1958년 8월에 자 리(里) 단위로 전국에 약 3,700여개의 협동농장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 자 협동농장은 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며, 관리위원회 밑에 5~7개의 농산 작업반을 두게 되며 자 농산 작업반은 다시 분 조(分組)로 나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나 축산지역에는 농산 작업반 이외의 파수 작업반, 축산 작업반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협동농장의 자 작업반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입니다. 이 이외에 축산 조직에 관해서는 협동농장의 축산 작업반과 자 도마다 2~3개씩의 도 영 목장과 북한 전체에 약 10여개의 국영농목장(國營農牧場)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직들이 북한의 축산물 생산에 동원되는 모든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자 농산 작업반에서는 1964년부터 자 작업반마다 년 2톤이상의 육류를 증상에 수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김 영 :** 자 조직의 인원편제는 대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 남 :** 자 협동농장은 관리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1명의 기사장, 통계원, 부기원, 창고장, 생산지도원 등이 있으며, 1개 농산 작업반은 대개 50~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영 :** 북한의 축산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김 남 :**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58년 6월 김 일성의 「**플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구호에 의해 축산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후에 축산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은 축산 작업반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생산이 활발하여 졌습니다.

**김 영 :** 자 조직의 가축수는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김 남 :** 1개 축산 작업반이라하면 소가 100두 내외, 돼지 300~500두, 닭이 20,000~30,000수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보다 큰 규모가 되면 대부분 도영목장(道營牧場) 또는 국영목장으로 편성하게 되지요.

---

### 가축수는 잘 모르나, 메추리 오리가 성해

---

**김 영 :** 북한의 자 가축별 통계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 남 :**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닭에 관해서는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1년말에 가서 11,000만수가 목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만, 정확하지는 않고, 가축의 종류는 대부분 소, 돼지, 양, 닭, 오리, 토끼, 메추리와 칠면조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플과 고기를**」이라는 구호 이후 비육율이 높은 돼지와 조식동물중에서는 토끼가 상당히 사육율이 높아졌습니다. 칠면조는 공산권중에서도 알바니아가 꽤 많이 먹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칠면조를 쿠바에서 수입하여 그것을 사육하여 지금쯤은 상당히 널리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종계는 대부분 개량종—육계 사육장은 닭공장

---

**김 영 :** 그러면 양계 부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병아리인데 병아리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김 남 :** 종계가 국산제인지 수입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역상황을 보면 병아리를 수입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대부분이 국산계의 개량종이 아닌가 싶어요, 알을 낳는 닭은 대부분 하얀 닭들이더군요. (아마 테그혼 계통을 말

하는 듯), 그리고 병아리의 공급은 각 축산작업반이나, 1개군에 3~4개씩 있는 종축장에서 병아리를 까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협동농장에서 받아 간 후 다 기른 후에 수매시키후에 결산을 보면 되지요.

**김 영:** 이번엔 뉴우스를 보니까, 닭공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 남:** 그것은 아마 닭고기를 먹기 위하여 기르는 닭들의 사육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각 닭공장에는 도계시설이 되어 있어서 각 닭 공장에서 생산된 닭을 도계하여 지정된 분배처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 년간 총 25~30억개의 알을 생산

---

**김 영:** 1마리의 년 생산되는 계란은 대개 몇 개나 될까요.

**김 남:**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총 생산되는 알이 1971년말에 25억~30억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등을 다 포함해서겠지요.

**김 영:** 닭고기의 생산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김 남:** 닭고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은 작년엔 총 80만톤이 생산되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약 40만톤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실제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양은 많지가 못하지요.

육류는(소, 돼지, 닭등을 포함해서) 아마 20~30만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쇠고기는 매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뉴우스에서 보셨겠지만, 공산품상점, 농산물, 식료품, 물고기, 남새(채소)상점등이 있어서 고기들은 식료품상점에서 팔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들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폐우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

### 한우를 개량—젖소로

---

그리고 젖은 아마 상당한 양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산양에서 나는 양도 꽤 많지만, 유우대신 한우를 물을 많이 먹이고 젖을 항상 만져 주

고해서 한우에서 꽤 많은 양의 젖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유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우입니다. 한우의 개량은 대부분이 종축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週) 탁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축산작업반에는 종돈이 있어서 각 농가의 종돈교미는 축산작업반의 기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

### 옥수수 생산량 약 150만톤 정도

---

**김 영:** 가축의 생산에 있어서 종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료인데, 특히 양계사료에 있어서는 옥수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옥수수의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또 배합사료의 생산량은 어떤가요?

**김 남:** 예, 그 방면에서 북한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농업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생산량이 70만정보에서 생산되는 양이 약 150만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옥미(玉米)라고 옥수수를 빻은 것으로 쌀대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상당량의 옥수수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료용 옥수수는 자급 자족이 가능 할 것입니다. 또 배합사료는 남한처럼 사료공장이 없고, 각 협동농장이나, 도영목장, 국영농목장에 소규모의 사료 배합용 기구들이 있어서 자체에서 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사료중 대두는 연간 약 2~3만톤정도 증공에서 수입하여 간장 된장용으로 쓰고 일부를 사료용으로 쓰고 있으며, 밀등은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연간 약 30만톤을 들여와 제분하고 부산물은 국영농목장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사료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급 자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협동 농장을 만들려면 맨 먼저 사료기지를 조성하여야 됩니다. 사료기지용 전담부터 조성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어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양축하고 있는 셈이지요.

---

## 질병관계는——군 소재지에 가축병원 1개씩

---

김 영 : 가축의 질병예방과 치료관계는 어떻습니까?

김 남 : 대부분 1개 군마다 수의사가 1명씩 배치되어서 고정적으로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방역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양돈장을 한번 들어 갔는데 온몸을 소독시키고 장화를 신고 들어 가게 하는데 상당히 엄격해요.

김 영 : 수의사들은 대부분 대학출신인가요.

김 남 :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출신을 기사, 대학원 출신은 학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기사들이지요.

김 영 : 참 축산관계 대학은 어떻습니까?

김 남 : 남한의 지방대학과 마찬가지로 각 도마다 1개씩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종합대학은 아니고, 각 지방대학은 농대, 교양원대(유치원 보포양성소) 교원대(사범대)의 과대학등은 꼭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대중에서 유명한 곳은 원산농대와 사리원농대 등이지요, 수의과대학은 강계수의대학이 유명합니다. 김일성대학에는 자연과학계와 사회과학계의 대학만 있고, 농대는 없습니다. 또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는 과수대학이란 것도 있습니다.

---

## 기술지도——가금부문 열성자 대회

---

김 영 :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 남 : 대부분의 축산작업반에는 대학 출신의 기사가 있어서 기사들이 하고 있으며, 또 영화를 통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는 한번씩 가금부문 열성자대회라는 것이 열려서 거기에서 경험등을 발표하고 비판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이 열성자대회에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성자 대회에서 셀로스(영어의 싸일레이지)를 닭에게 먹이자는 얘기가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셀로스통이 굉장히 건설된 때도 있었습니다.

김 영 :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종합연구소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 남 : 농업과학연구원이란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잠업시험장, 과수시험장, 축산시험장, 농업시험장과 잠학연구소, 채소, 식물생리학, 식물보호학, 농업화학, 농업기계학, 농업시설학, 축산학, 사료학, 작물재배학, 모양학, 육종학연구소 등의 각종 연구소가 있으며, 인원은 대부분 박사, 학사(남한의 석사)급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각 도마다 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남한의 농촌 진흥청과 비슷한 체제일 것입니다.

---

## 유통과 생산물 가격은?

---

김 영 : 유통 문제와 양계산물의 가격은 대개 어떤 형태입니까?

김 남 : 거기에는 생산농장마다 지정하는 공급소(자 공장의 공급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생산물의 가격은 대개 계란이 15전, 닭1 마리에 5원입니다. 이것은 그쪽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므로 좀처럼 사먹기가 어려운 형편이지요.(남한화폐와의 환율은 대개 170대 1로 본다. 즉 계란 1개에 25원꼴, 닭 1마리에 850원꼴인 편이다 참고로 군의 서기의 월급은 북한화로 40원).

김 영 : 현재 북한의 축산이나 양계 관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 남 :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축산분야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되어서 현재의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몇가지 자료가 있으니 언젠 김선생님이 오셔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고 분석하시면 아마 딱 재미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김 영 : 오랜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文責在記者)